

명랑문화  
교육프로그램

# 명랑문화 교육프로그램

2022 중랑문화재단  
지역문화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 문화 교육 프로그램

### 문화 교육 프로그램

#### 문화 교육 프로그램

JNCF  
중랑문화재단  
JONGNANG CULTURAL FOUNDATION

2022 중랑문화재단  
지역문화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명랑 테이블리  
양심 프로젝트  
결단 자료집

# 목차 CONTENTS

여는 글	03
양성 프로젝트 커리큘럼	04
명랑 테이블러들과의 일대일 문답	09
명랑 테이블러 만족도 조사	32
자체평가 및 제언	33

## 여는 글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은 예술가들이 직접 테이블을 들고 문화소외계층을 찾아가 1:1 예술체험을 시도하는 중랑문화재단의 대표 문화사업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해 8개의 기관에서 335명의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로 2년 차인 <명랑중랑>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중랑구민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이는 2022 중랑문화재단 지역문화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중랑구 예술가와의 상호 협력과 더불어 <명랑중랑>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획된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는 기존 <명랑중랑>의 활동가와 예술가를 ‘테이블러’로 확대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특강, 테이블 개발, 실습으로 이루어진 총 8회차의 워크숍을 모두 수료한 11명의 예술가는 지난 7월부터 <명랑중랑>의 테이블 작가로 활동하며 수백 명의 중랑구민을 만났습니다. 테이블을 펼치는 예술가는 중랑구민과 만나며 새로운 영감을 받아 성장하고, 테이블에 참여하는 중랑구민은 음악, 연극, 무용 등 더욱 다채로운 예술테이블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1명의 신규 테이블러들 덕분에 작년보다 테이블이 2배 이상 늘어났고, 총 수혜자 역시 2배 이상 꺾중 뛰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소중한 지역문화 주체들과 함께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을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 및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매년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풍부한 역량을 갖고 있는 중랑구의 문화인력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예술가와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명랑 테이블러>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신 11명의 명랑 테이블러 1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랑문화재단 문화정책사업팀

2022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연계사업 2022. 05 May — 07 July

#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

매주 월 14:00 — 17:00  
중랑아트센터 제2전시실

2022 중랑문화재단  
문화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자신의 예술 작업이나 재능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가 가진 유무형의 것들을 거래하고 교환하는 작업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활동가나 예술 전공자들을 찾습니다.

자신의 작업이나 예술적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은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요?

예술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고 상대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관계와 소통 속에서 예술가가 성장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본 워크숍 참여자는 중랑문화재단의 '2022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하반기 프로그램의 테이블 작가로 활동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 모집기간

2022. 4. 11. 월 — 4. 27. 수

### 모집대상 및 인원

자신의 예술 재능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협업하는 데에 관심이 있거나, 예술 작업 및 경험이 있는 예술 전공자 20명

### 신청방법

중랑문화재단 홈페이지 공모·소식 참고  
www.jnfac.or.kr

① 이메일 제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jnart@jnfac.or.kr 제출

② 구글폼 제출  
구글폼 링크 접속 → 작성 및 제출

### 사전인터뷰 / 오리엔테이션

Pre-interview / OT

- 05.02 사전인터뷰 신청자 개인의 예술 작업을 탐구해보는 시간 **손한샘 예술장동행이 대표**
- 05.09 오리엔테이션 2022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프로그램의 방향을 소개하는 시간

### 워크숍 ①

Workshop 1

- 05.16 가치를 교환하기 2021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작가 (예술장동행이)의 다양한 대면 작업을 체험해보는 시간 **송승욱, 심민선, 이울리, 조정원, 솜수프, 프르르 예술장동행이팀**
- 05.23 몸짓으로 이해하기 몸짓으로 하는 소통방식을 경험해보고,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보는 시간 **이들 적간**
- 05.30 다양성을 생각하기 2021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 전시기획자와 함께 장신장애,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업세계를 살펴보고 예술의 다양성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김효나, 김인경 최정단체 방문박**
- 06.13 대화법 배우기 소통의 원리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이희선 행복을 함께하는 자리연구소**

### 워크숍 ②

Workshop 2

- 06.20 찾아보기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관심 있는 것을 찾아보는 시간 **손한샘 예술장동행이 대표**
- 06.27 적용하기 탐구 과정을 통해 찾은 나만의 예술 작업을 타인과 공유할 방법을 구체화 해보는 시간
- 07.04 드러내기 나의 예술 작업의 내용으로 소통 방식을 실현화하고, 함께 시뮬레이션하며 수정 및 보완하는 시간

### 실습

Practice

- 07.16 실습 ①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낸 각자의 예술 테이블을 실험적으로 운영해보는 시간 **손한샘 예술장동행이 대표**
- 07.23 실습 ②

☞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의 커리큘럼은 관내 예술가들이 각자의 예술적 자원 및 재능을 활용해 자신만의 예술테이블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여 총 10회에 걸친 커리큘럼은 '워크숍 I(특강 4회) - 워크숍 II(테이블 창작 및 개발 3회) - 실습, II(2회)' 로 구성되었습니다.

## 1 오리엔테이션

05.09

2022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 프로그램의  
방향과 참여자 소개

**손한샘** 예술장동행이 대표



## 2 가치를 교환하기

05.16

참여자들이 2021 <명랑중랑>의 테이블 작가 6인의  
예술테이블을 경험해보는 시간

**송승욱, 심민선, 이울리,  
조정원, 솜수프, 프르르**  
예술장동행이팀



### 3 몸짓으로 이해하기

05.23

몸짓으로 하는 소통방식을 경험해보고,  
몸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보는 시간

이들 작가



### 4 다양성을 생각하기 05.30

정신장애,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업세계를  
살펴보고 예술의 다양성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김인경 창작단체 밝은방

### 5 대화법 배우기

06.13

소통의 원리를 파악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이희선 행복을 함께하는 자리연구소



워크숍 II 과정을 통해서도 참여자들 개개인이 지속해오던 예술 작업을 기반으로 테이블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11명의 참여자들은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어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예술적 재능까지 함께 발굴해보는 과정을  
거치며 자신만의 예술테이블 개발에 힘을 쏟았습니다.

### 6 찾아보기

06.20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관심 있는 것을 찾아보는 시간

손한샘 예술장들뱅이 대표

### 7 적용하기

06.27

적용하기 탐구 과정을 통해 찾은 나만의 예술 작업을  
타인과 공유할 방법을 구체화해보는 시간

손한샘 예술장들뱅이 대표

### 8 드러내기

07.04

나의 예술 작업의 내용으로 소통 방식을 실현화하고,  
함께 시뮬레이션하며 수정 및 보완하는 시간

손한샘 예술장들뱅이 대표



7월, 8회의 워크숍을 통해 테이블 개발을 마친 11명의 테이블러들이 새로운 테이블을 들고 <명랑중랑> 3, 4회차가 운영된 중랑상봉도서관과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으로 찾아갔습니다. 자신만의 예술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테이블러들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참여자들 역시 열띤 호응을 보냈습니다. 테이블러들은 이후 하반기 <명랑중랑> 5~8회차에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테이블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올리는 데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9 10 실습

07.16 / 07.23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낸 각자의 예술테이블을 실험적으로 운영해보는 시간

손한샘 예술장돌뱅이 대표



◀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 중랑상봉도서관

## 2022 명랑 테이블러들과의 일대일 문답

Q1 | 명랑 테이블러에 참여한 계기는?

Q2 | 명랑 테이블러에 참여한 소감은?

Q3 | 작가님의 예술테이블을 소개해주세요.

Q4 | 내가 만난 중랑구민에 대해 나눠주세요.

1	박선영 선율로 그리는 마음	10
2	김태현 하트당	12
3	오경선 오박사네 웃음 연구소	14
4	송재홍 당신한테 유리한	16
5	오소민 마주보는 뮤직테라피, 소리풀이	18
6	돌아보기(김재현) 탐정이 되어 감정몽타주를 그려보자	20
7	김로사 오늘의 휴식	22
8	고다현 초능력 제작소	24
9	김라희 가면무도회	26
10	김미란 탱? 탱! 낭독	28
11	도준 식물과 드로잉	30

# 1 박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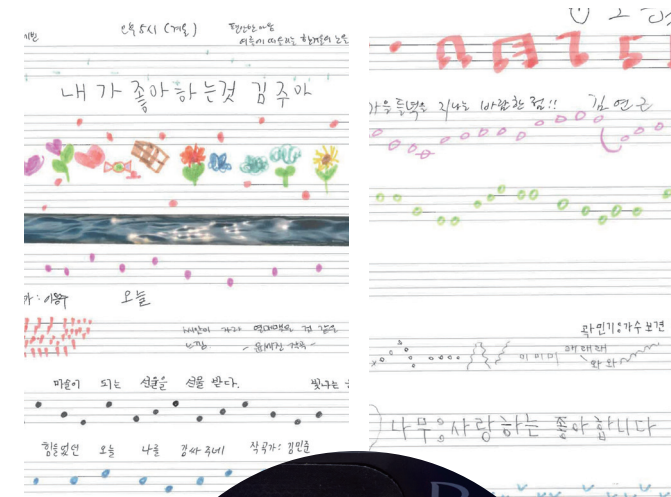


**마음 속 내재한 선율들을 모아  
곡을 만들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작가 박선영입니다.**



1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만드는 일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멋진 연주를 기대하며 인내하는 연습 시간, 마음속에 내밀하게 떠오르는 영감을 쫓으며 고뇌하고 곡을 쓰는 시간 모두 대부분 혼자 시작하고 끝맺음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물을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듣는 이에게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작업 방식 때문에 문득 제 음악이 제 안의 어떤 틀 안에 갇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는 명랑 테이블러만의 작업 방식이 제 개인적인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감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개인의 예술테이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개발해나가는 시간은 제게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해주었습니다. 특히나 좋았던 것은 초반 프로젝트 과정에서 여러 강사분들의 다양한 특강을 들을 수 있었던 것과, 이미 <명랑중랑>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예술테이블을 체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장에 투입되기 전 주어진 시간 안에 얼른 프로그램을 구상해야한다는 조급함이 크게 있었는데, 담당 선생님께서서는 오히려 당장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재촉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작업을 구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개인 프로젝트 자체에만 매몰되기보다 테이블러 작가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시각에 대해서도 배우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테이블러 작가로서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해주시고 믿어주신 덕분에 용기를 얻어 결과적으로는 재밌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예술테이블 - **선율로 그리는 마음**  
“오선 위에 원하는 만큼, 원하는 위치에 점을 찍어주세요. 이론, 게이름은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게 선율을 전해주시면 음악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 앞에 앉은 참여자들에게 빈 오선 노트를 건네며 그 위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 점을 찍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참여자는 요청한 대로 점을 찍고, 제게 선율 노트를 건네주면 그 음악을 건반으로 연주해보며 음악을 구상하고 짧은 시간 뒤 바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최대한 참여자가 만들어낸 선율로 반주를 붙이고 이후 약간의 변주를 더해 하나의 곡을 완성합니다. 곡을 들으며 떠오른 생각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마무리 됩니다.

4 오선 위에 자유롭게 찍은 점들이 선율이 되는 제 작업 방식에서 가장 큰 변수는 참여하는 사람들 제각각 모두 다른 선율을 제게 전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이 제 작업에서 가장 재밌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선율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곧바로 즉흥연주를 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여자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선율을 연주할 뿐이지만, 참여자 분들께서 제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전해주는 마음은 그에 비해 과분할 정도로 크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올해에 만나 빈 참여자 분들에게 받은 과분한 마음을 잘 모아두었다가 앞으로 제가 만나게 될 다양한 참여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2  
김태현



**예술가 김태현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시각예술을  
해왔습니다. 육아로 인해 잠시  
휴식기를 가졌고,  
앞으로 어떤 예술을 해야 하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하는 중에 명랑 테이블러에  
도전하였습니다.**

1 이제껏 해오던 혼자 하는 예술은 제게 외로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동료들, 구민들과 함께 만드는 즐거운 예술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예술이란 무엇일까?"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예술을 경험하고, 예술의 경계와 한계는 없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매 워크숍마다 기대가 되었고, 새로운 경험은 무기력하던 일상에 생동감과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3 예술테이블 - 하트당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이곳은 마음을 이야기하며 표현해보는 곳입니다.  
상처받은 마음, 행복한 마음 등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보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곳입니다.  
어떠한 마음이든, 이야기든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야기해주세요.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완성된 마음은 당신에게 기쁨 또는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하트당>의 처음 의도는 상처받은 마음의 속풀이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로 만난 참여자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내보이기보다는 행복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행복함을 이야기하며 마음(하트 오브제)을 표현할 때 참여자의 즐거움이 느껴졌습니다.

행복한 마음, 즐거운 마음은 큰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만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말한 행복은 '가족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 때' 등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행복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행복한 시간임을 느꼈습니다.





3  
오경선



**예술 강사 겸 연극배우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림책을 매개로 1인 공연을 제작하여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의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instagram



1 지난해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예술가들이 테이블을 들고 직접 찾아가간다는 주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각 작가들의 예술 작업이 담긴 테이블에서 참여자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술에 몸담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저만의 새로운 예술테이블을 만들어 보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최근 몇 년은 웃을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웃음을 정말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 박사네 웃음 연구소에서 잃어버린 웃음을 찾는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 모두 즐겁게 웃으며 신나게 즐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도 많이 웃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3 예술테이블 - **오 박사네 웃음 연구소**  
이곳은 오 박사네 웃음 연구소입니다!  
긴급 사태!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주고 싶은 오 박사!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웃음을 되찾아줄 수 있을까요? 과연 오 박사는 새로 들어온 연구원과 함께 웃음 에너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좌충우돌 가상 드라마 예술 체험  
<오 박사네 웃음 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4 웃음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오 박사와 함께 웃음 에너지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설정이 흥미로웠고, 특히 '살아있는 웃음 에너지 만들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웃을 일이 거의 없었는데, 반짝이 의상과 소품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웃음 에너지를 통해 이번 체험으로 실컷 웃었다는 한 초등학생의 소감이 기억에 남습니다.

4 송재홍



중랑구에서 유리공예공방 'Song's glass 아뜰리에'를 운영하고 있는 송재홍입니다. 스테인드글라스로 소품과 장신구 등을 제작하고, 버려지는 와인병을 가공하여 식물화분 또는 화병으로 재생하는 중랑구 생활예술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1 혼자만 제 작업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싶어 신청했고, 저의 유리공예 작업을 중랑구에 널리 알리기 위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명랑 테이블러가 되면 지역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2 제가 테이블러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서 어울리기 힘들까 싶었지만, 중랑구 예술가들과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즐거운 일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활동 영역이 넓어졌어요. 혼자 공방에서 유리공예 작업을 하던 때보다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기회의 문이 열린 것 같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 예술테이블 - 당신한테 유리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당신의 기분이나 바라는 일들 혹은 당신의 하루를 생각하면서 유리알을 골라보세요. 당신의 사연을 듣고 당신한테 유리한 것을 드립니다.



4 중화경로복지관에서 만난 흰머리 소녀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두 6~70대이지만 소녀 같은 얼굴을 하고 작업에 열중하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보통 어린이 참여자를 많이 만나다가 같은 나이대의 참여자를 만나보니 동질감이 느껴져서 더 대화도 잘되고, 예술로 쉽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옛날이야기, 고향 이야기 등을 나누며 또래 친구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이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면목정보도서관에서 만난 한 남자아이의 엄마는 늘 산만했던 아들이 이렇게 집중력이 높은 건 처음 본다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손자뻘 되는 아이가 유리의 색깔을 신중히 골라서 배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테이블러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성취감까지 느껴지니 매우 기쁩니다.



5  
오소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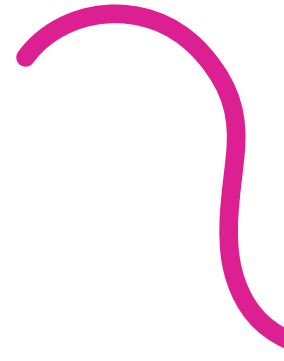
**<명랑중랑>에서  
마주보는 뮤직테라피,  
소리풀이(現 힐링 카페 「풀이」)를  
운영하고 있는 오소민입니다.**

1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능력을 좀 더 색다르게 풀어낼 방법, 저의 예술작업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던 와중에 이 프로젝트를 접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예술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작업들을 많이 만났지만, 테이블러 워크숍에서 만난 작업들은 또 다른 결의 기발함이 묻어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예술작업에 대한 시야가 더 트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3 예술테이블 - **마주보는 뮤직테라피, 소리풀이(現 힐링 카페 「풀이」)**  
<마주보는 뮤직테라피, 소리풀이>는 음악심리치료기법이 가미된 음악 기반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원하는 풀이 메뉴를 주문하여 예술 활동을 진행합니다. 예술가와의 상담을 통해 나를 마주하고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며, 나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로 풀어내어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경험해 봅니다.

4 테이블러 활동을 하면서 많은 중랑구민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다들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즐기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예술작업에 감동하고 위로받는 분들을 보며 소통 창구를 확장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테이블러로서 마주할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

## 돌아보기 (김재현)



**중랑구로 이사 온 지 약 5년 차 되는, 소소한 일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는 일상 그림쟁이이자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디자이너인 돌아보기(김재현)입니다.**

1 다른 지역에 살다가 중랑구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는 지인이 없어 중랑구에 사시는 예술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싶었고, 중랑구의 다양한 공간에서 중랑구민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중랑구에서 적극적으로 여러 예술 활동을 하며 중랑구 예술가로 자리 잡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중랑구나 근처에 거주하시는 여러 예술가분들을 만나서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워크숍 커리큘럼도 모두 제가 처음 해보는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 있어, 매주 기대되는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instagram



### 3 예술테이블 - **탐정이 되어 감정 몽타주를 그려보자 (前 오늘만 보건교사 돌아보기)**

참여자도 최근에 느끼는 감정의 종류를 선택한 후, 제가 제작한 눈, 코, 입 등이 그려진 스티커를 통해 그 감정의 얼굴을 만들어봅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직접 만든 얼굴에 색칠을 한 후 이름도 지어줍니다. 저는 참여자가 감정 몽타주를 만드는 동안 참여자의 캐리커처를 그려 드립니다.

캐리커처에는 참여자가 선택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과 문구를 함께 적어드려요. 이 활동을 통해 참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왜?' 라는 물음으로 그 감정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제가 가보지 못했던 중랑구의 다양한 곳에서 여러 중랑구민을 만났습니다. 자녀의 예술 참여를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중랑구 부모님들 덕분에 특히 어린이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또한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에서 만나 뵈었던 장애인분들은 색을 다양하고 꼼꼼하게 잘 사용하셔서 멋진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보고 인상이 깊었습니다.



7  
김로사



**마음에 드는 음악을 들으면 춤을 추고 싶고, 멋진 움직임을 보면 함께 하고 싶은 재즈댄서 김로사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간에 춤추는 행위에는 언제나 진심인,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춤추고 싶은 사람입니다.**

1 3년의 코로나 기간, 생업의 시간이 멈추면서 일상적인 삶과의 단절은 사람이 환경에 받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춤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으니, 새로운 방법과 방향을 고민 중에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고 보자마자 '이건 해야 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형의 춤을 유형화시킬 방법이 없어서 '나는 뭘 할 수 있지?' 라는 걱정만 하다가 일단 해야 하는 환경에 드러내보자는 생각으로 한 발 내딛게 되었습니다.



2 사전인터뷰 때 주신 “춤 말고, 다른 관심 있는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은 말문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춤 말고 할 줄 아는 건 없는데 그 춤의 깊이가 대단히 깊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이 질문은 좀 오랫동안, 머리와 가슴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질문의 답이 테이블러가 되었으면 합니다.

3 예술테이블 - **오늘의 휴식(現 아지모공)**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소리를 들으며 간단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고르고 그 음악을 느끼면서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 해 봅니다.

4 새로운 성향과 세대의 사람을 공통의 주제로 만나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즐거운 일입니다. 첫 테이블러로 중화경로복지관에서 만났던 어르신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와 어르신 사이에 흐르는 묘한 경계심을 느끼며 그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경직된 어깨가 속 내려가면서 조심스레 나오던 그분의 이야기로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대단히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느껴진, 한껏 경직되었다가 풀어진 어깨 근육, 그렇게 바뀌던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의 온도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명랑 테이블러로 활동 중인 고다현 작가입니다.**  
**영상제작자, UIUX디자이너, 아동 미술 보조교사를 거쳐, 현재는 서울과 제주 롱디 커플의 일상을 담은 <서울제주러브> 인스타그램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instagram



1 저는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고 싶어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1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종랑>을 보면서 저도 제 예술적 방식으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림을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그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서, 따뜻한 그림으로 친근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사람들이 다양한 초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속에는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 휴식을 취하고 싶은 소망, 다른 사람과 동물 혹은 환경에 도움을 주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역시 세상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풀어가며 소통할 때 신기해하시며 좋아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p.s.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은 초능력으로 '순간이동'을 선택했는데 누군가 순간이동 기계를 만들면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 3 예술테이블 - 초능력 제작소

초능력자가 된 나 자신을 그림카드로 그려 드립니다. 초능력자가 돼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함께 대화해봅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초능력을 도와줄 조수와 초능력자가 된 나의 새로운 이름을 정합니다. 초능력자가 되어 원하는 소망을 이룬 나의 초능력 그림카드를 참여자에게 전달합니다.

4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어린이 참여자들이 많았는데, 가족들과 놀러 가고 싶다는 소망이 많아서 '아이들의 세상은 가족과 함께 자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 몇몇 어린이는 어른인 저조차도 놀라게 하는 초능력을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지키는 히어로가 되어서 고양이를 유기하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은 어린이,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해서 사막을 비옥하게 만들고 싶은 어린이,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동물, 환경을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무용을 전공한 김라희입니다.  
한국무용수로 공연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면무도회>의  
테이블러로 활동 중입니다.**

1 평소 사회적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이 있었고, 저의 예술적 재능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관심이 생겨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다양한 예술분야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토론형식의 워크숍이 좋았습니다. 몸짓으로 하는 소통방식을 경험해 본대거나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방법, 소통하는 방법 등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몸짓 워크숍에서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몸짓으로 표현하며 서로 에너지를 느끼는 시간들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 3 예술테이블 - 가면무도회

나의 진짜 모습(속)과 내가 남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겉) 양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겉과 속 양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남들이 말하는 나의 모습, 나의 외향적인 모습, 내가 보여 지고 싶은 모습 등을 의미하고, '속'은 나만 아는 나의 모습, 나의 장점, 들키기 싫은 나의 모습 등을 의미합니다. 겉과 속 중 한 가지를 택해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가면을 꾸며보고 가면의 안쪽에는 자신의 속마음이나 자신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어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면을 쓰고 자신의 외면과 내면의 감정을 하나의 동작으로 표현해봅니다.



4 테이블 운영 중에 두 참여자가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남자아이는 제 테이블에 앉자마자 즐거움과 신남의 감정카드를 선택하더니 곧 다가올 할로윈에 쓸 가면이 필요하다고 열심히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좀비의 가면을 만들겠다는 그 친구는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예를 들면 가위로 가면을 잘라가면서) 가면을 만드는데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완성된 가면을 쓰고 저에게 무서운 음악을 틀어달라고 요청했고, 신나게 좀비 춤을 보여줬습니다. 에너지가 넘쳤던 좀비 가면을 쓴 친구 덕분에 하루가 유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참여자는 초록색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와 이야기하는 도중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힘들다며 마음이 힘들 때마다 초록색이 무성한 자연을 본다고 했습니다. 초록색을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면 온통 초록색으로 가면을 꾸미고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다며 편안한 호흡의 움직임으로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테이블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참여자들 만났습니다. 그들만의 상상으로 수많은 가면들이 탄생되고, 생각지도 못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움직임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느끼며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극과 동화 구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김미란입니다.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에 관심이 많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 예술이 좋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명랑 테이블러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날 생각에 설렘했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워크숍을 통해 많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뭉클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다른 테이블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사람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예술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예술작업을 참여자(예술가)들과 함께 마음껏 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예술테이블 - 탱? 탱! 낭독(現 미란극장)

제 프로그램 <탱? 탱! 낭독>은 테이블러가 짧은 공연을 하고, 공연 후 테이블러와 참여자가 함께 짧은 대본으로 낭독을 해보는 예술테이블입니다. 낭독을 하기 전 쟀탱글을 통해 내 마음을 감정의 단어로 표현해 봅니다. 이후에 감정을 넣어 낭독해 봄으로써, 내 감정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작게나마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들여다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되는 예술테이블입니다.

### 4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기억에 남습니다.

흥부와 놀부 낭독을 함께 했는데, 정말 놀부가 된 것처럼 감정을 넣어서 연기를 하는 모습에 놀라기도 했고, 그 순간 집중하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30대 참여자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낭독에도 진지하게 임해주셔서 저 역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낭독을 하면서 많이 배운 순간이었습니다.







**<식물과 드로잉>의 테이블러  
도준입니다. 주로 식물을 모아  
엽서로 재생하고, 디자인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이전부터 개인 작업으로 다양한 식물을 말려서  
엽서를 만드는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어  
해왔었습니다. 그걸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는데, 중랑문화재단에서 하는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 모집 공고를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 우선 너무 기분이 좋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을 해오면서 저에게 마음의 생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워크숍 작업을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감사합니다.

instagram



3 예술테이블 - 식물과 드로잉(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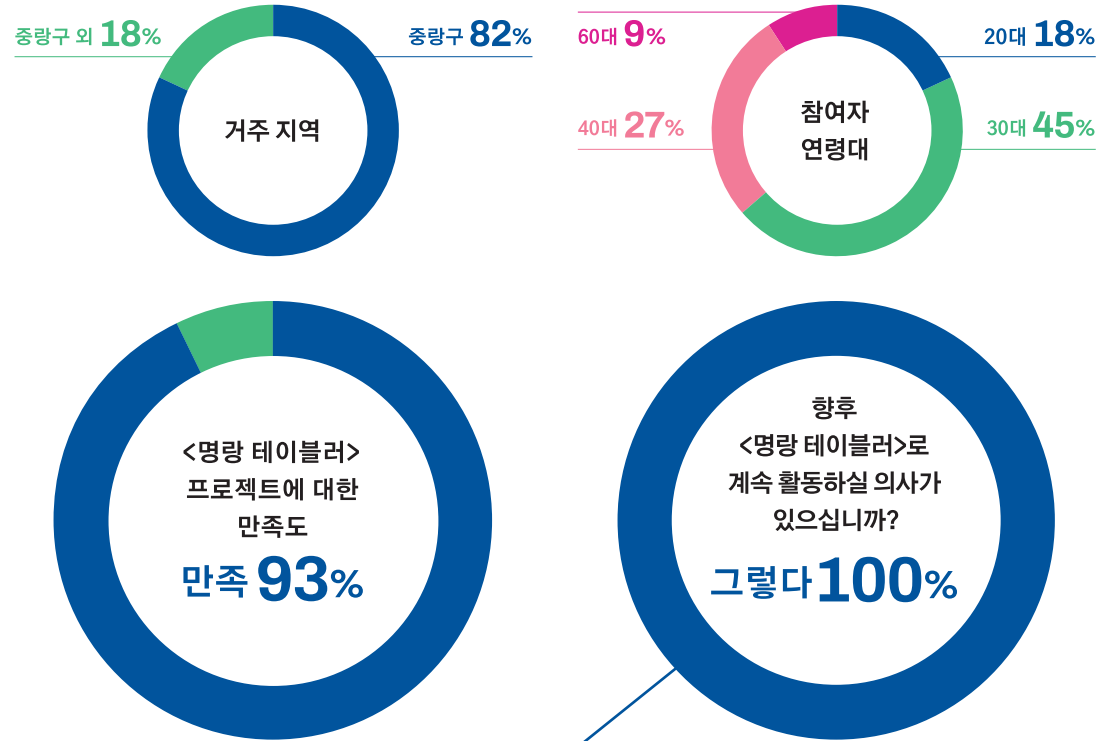
저는 마른 꽃이나 식물들을 모아서 재생산하고  
디자인화하는 그림엽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창작의 일환으로, 제가 평상시 해오던  
드로잉 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중랑구민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실질적으로  
참여자로서 창작해 볼 수 있게 돕는 예술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4 중랑구 참여자들 중 직접 신청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제 예술테이블에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도 제 작업을 응원해주시고, 직접 스스로  
엽서를 만들어보면서 기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 참여자 만족도 조사



### 꾸준히 <명랑 테이블러>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 저의 예술 작업에 도움이 되었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부분들이 좋아서
-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얻는 에너지와, 참여자 분들에게 느끼는 다채로운 감정이 예술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 적성에 잘 맞고 즐거워서
- 나의 예술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후속 프로그램을 계속 이어서 만들어 보고싶어서
- 참여자 분들과 나눈 말들, 마음을 통해 제 자신이 배우는 것이 많은 감사한 활동이기 때문에
- 작업자로서 작가활동에 대한 보람이 많이 느껴져서
- 활동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서
- 활동하며 얻게되는 값진 경험들과 더불어 개인적인 프로그램 역량을 더 계발하고 싶어서
- 나의 예술작업에 대해 홍보할 수 있고, 다양한 연령대와 소통할 수 있어서
- 아직 찾지 못한 나의 예술활동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싶어서

# 자체평가 및 제언

## 자체평가

이번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는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을 구민과 지역 예술가가 연결되는 사업으로 꾸러나가기 위한 첫 시도였습니다. 참여자 모집부터 기대보다 많은 40여 명의 참여자가 지원하였고, 최종 선발된 11명의 테이블러들은 높은 출석률로 열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워크숍 이후 <명랑중랑> 현장에서 이루어진 실습과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명랑중랑>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문화 주체의 발굴이 덜 이루어진 중랑구에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네트워킹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는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앞으로도 2기, 3기 테이블러들이 계속 발굴된다면 중랑구민이 만날 수 있는 <명랑중랑>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숨어 있는 지역문화 인력들의 활발한 활동 기회 및 성장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선사항

### 워크숍(특강) 과정 중 더욱 다양한 강의에 대한 수요

- 올해 커리큘럼 중 외부 특강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는 워크숍이 총 4회 진행되었으나, 더욱 다양한 강사들을 초빙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워크숍(테이블 개발) 과정의 회차 부족에 대한 아쉬움

- 총 3회로 이루어졌던 각자의 예술테이블을 개발하는 과정이 짧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회차 별로 인원을 나누어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하거나, 워크숍 개발 회차 자체를 확대해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도 좋을 듯합니다.
- 예술테이블 개발 과정이 모두에게 다소 짧았다 보니, 참여자들끼리도 서로의 테이블을 체험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워크숍 8회차에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과정이 있었지만 모든 테이블을 체험해보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내년에는 시뮬레이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서로의 테이블 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멘트를 익명으로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과정 등을 갖는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속적인 테이블러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 거주 지역이 비슷하고 활동 분야가 같은 예술가들이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할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2 중랑문화재단 지역문화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 결과자료집**

**발행일** 2022. 11. 15.

**발행처** 중랑문화재단

**발행인** 표재순

**편집인** 유경애

**총괄책임** 장보순

**기획총괄** 김수미

**기획·운영** 송다원

**운영도움** 김기혜, 권현님, 권민경, 김현진, 전은희, 이상림

**편집 및 디자인** ist Studio(이스트 스튜디오)

**중랑문화재단**

**주소** 0208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53 이노시티 C동 B2F

**전화** 02-3407-6500

**팩스** 02-2208-0030

**홈페이지** [www.jnfac.or.kr](http://www.jnfac.or.kr)

**SNS** [https://www.instagram.com/jnfac\\_official](https://www.instagram.com/jnfac_official)

[https://blog.naver.com/jnfac\\_official](https://blog.naver.com/jnfac_official)

<https://www.youtube.com/중랑문화재단>

이 책은 2022 중랑문화재단 지역문화 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명랑 테이블러> 양성 프로젝트의 결과를 담은 자료집입니다.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중랑문화재단에 있으며,  
저작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